

## 원효와 의상- 같은 목표 다른길

2017. 11. 7.

정병삼 \*

1. 삼국통합 새로운 마당의 불교
2. 원효-사상의 정화를 넘어 대중불교로
3. 의상-교리 탐구와 신앙의 원만한 조화
4. 사상과 실천의 조화로운 삶

### 1. 삼국통합 새로운 마당의 불교

4세기 후반에 고구려와 백제에 수용된 신라에서는 진통을 겪은 끝에 6세기 전반에야 국가적인 공인을 받았다. 수용 과정은 어려웠지만, 신라불교의 확산 양상은 삼국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었다.

무열왕이 즉위하여 ‘중대’(654~780년)가 시작되면서 7세기 중반의 신라 왕실은 지방 제도 정비와 중앙제도 개편으로 왕권을 강화하여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유지해 갔다. 이들 체제를 운영하는 이념으로 유교가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유학자들이 대거 등장하였으며, 왕의 이름도 불교식 왕명에서 시호로 바뀌었다. 중대 왕실은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한 후 사회구조의 재편성을 시도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교계의 제도적인 개편으로 성전사원이 승정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제도적 변화와 유학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어 가는 사상계의 동향에 상응하여 삼국의 불교를 종합하고 중국불교의 신경향을 이해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불교사상을 담아낼 새로운 불교사상 체계를 확립하고 기층민들에게까지 널리 불교를 이해 전파시키는 것이 불교계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통일기 신라 일반민들은 의식의 성장에 따라 보살사상에 입각한 보살계와 불성론 수용으로 인간의 본질적 평등성을 주장하는 인간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업설과 윤회사상이 현실의 신분 차별을 완고하게 지지하고 있었지만 불교 교리의 이해에 따른 평등관의 수용은 새로운 의식의 변화였다.

통일기의 신라불교는 활발한 교단 운영을 바탕으로 교학 연구와 실천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 신라 사회의 중추가 되었다. 중고기 이래 다양한 교학을 성숙시키며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온 신라불교는 고구려와 백제의 성숙한 교학을 수용하여 보다 진전된 불교사상을 꽃피웠다. 유식과 기신론 그리고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적 추구는 상호

\*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의상 화엄사상 연구』(1998, 서울대 출판부)

연관을 보이면서 깊은 교학적 이해를 보여 신라 불교철학을 이룩하였다. 사상적 추구에 주력한 흐름으로는 유식사상과 기신론사상 및 화엄사상 등이 있고, 신앙과 실천을 중시한 흐름으로는 계율과 밀교를 비롯하여 미타 관음 등의 정토신앙이 있었다.

삼국시기부터 교학의 중심을 이루었던 유식사상은 신유식이 신라에 전해지면서 여러 학승들의 왕성한 연구가 이어져 통일신라 교학의 가장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화회적 지향성을 추구하는 원측(圓測)의 유식사상은 도증과 대현(大賢)에게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뚜렷한 흐름을 이루었고, 순경 경홍 의적 등 각기 다른 사상적 성향을 보이는 유식사상가들이 대거 등장하여 유식사상은 7세기 후반 신라불교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다.

원측은 모든 교설을 방편이라고 보고, 이론 자체의 체계성이나 적합성보다 그 쓰임에 주목하였다. 원측은 핵심 도리는 중도로 보면서 중관과 유식의 의의를 인정하여 집착과 편견을 제거한 중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원측은 중관과 유식의 대립적 입장을 폭넓게 포용 이해하여 극복하려는 화회적 태도를 가졌다. 원측의 유식사상은 보다 포괄적인 구유식의 틀에 논리적인 신유식의 이론을 가미하여, 신유식을 수용하되 구유식과의 화회적 지향성 추구하는 독자적 사상체계를 이룸으로써 완비된 이론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통일기의 신라의 정치 경제적 진전에 따라 신라의 독자적인 교학체계가 형성되고, 고양된 기층민의 의식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를 적극 수용한 승려들의 주도에 의해 신앙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그 가장 보편적인 신앙은 미타신앙과 관음신앙이었다.

미타(彌陀)신앙은 사람들이 아미타불을 지성으로 염송하면 죽은 뒤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내세신앙이다. 신라의 미타신앙은 별다른 공덕을 쌓을 수 없었던 중고기의 일반 민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녔다. 여기에 기층민들과 직접 어울리던 교화승들의 활동이 더해져 점차 기반을 다져나갔다. 중대에는 승려들의 경전 연구와 고취에 힘입어 아미타신앙이 더욱 성행하여 사후 추선과 현세 왕생을 중심으로 폭넓게 전개되었다. 관음(觀音)신앙은 국가의 안녕을 빌고 개인적 현세이익을 보장받고자 하는 현실 구제의 성격이 강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미타정토 왕생과 연결된 내세적 경향도 가져서 당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던 신앙의 하나였다. 현실 구제 중심의 관음신앙은 불국토적 진신신앙이나 변화관음 등으로도 나타났다.

지장(地藏)신앙은 석가가 입멸한 뒤 부처가 없는 말법시대에 하늘에서 지옥에 이르는 육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망자 구제 신앙이다. 그런데 진표가 선포한 지장신앙은 점찰계법의 계율을 지키는 실천행을 강조하는 신앙이었고, 이는 지방의 서민들에게 깊숙이 전파되었다. 약사(藥師)신앙은 주술을 이용한 치병 신앙으로, 질병과 기근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신앙인들의 의지처가 되어 주었다.

## 2. 원효-사상의 정화를 넘어 대중불교로

원효(元曉)는 삼국이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쟁패권을 다투고 있던 617년(진평왕 39년)에 육두품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승명이 원효이고 출가하고 나서 그의 집을 절로 만들어 초개사(初開寺)라 한 사실들은 그가 불교를 처음 열었다는 의

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원효 불교에 대한 신라인들의 높은 평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원효는 10대 중반에 불문에 출가하였다. 그는 일정한 스승을 정해 배우거나 한곳에 머무름이 없이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교학을 섭렵하였다. 원효가 교류를 가졌던 인물들은 모두 교단불교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아니라 마을에서 일반민과 어울리거나 산속에서 은둔생활을 하던 이들이었다.

이즈음에 현장이 새로 번역 소개한 신유식은 신라에서도 지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그래서 원효는 후배인 의상과 함께 650년(진덕왕 4년)에 이 신유식을 배우고자 고구려를 통해 중국 유학을 시도하였으나 당시의 첨예한 삼국관계 때문에 실패하였다. 대신에 의상과 함께 고구려의 보덕에게서 『열반경』 강의를 들음으로써 보다 진전된 불교 사상을 수용할 수 있었다. 661년(문무왕 원년)에 원효는 또 다시 의상과 함께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번에는 해로를 택해 중국으로 건너가려 하였다. 그런데 도중에 억센 비를 만나 길가의 흙구덩이 사이에 몸을 숨기고 비바람을 피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몸을 피한 곳은 바로 고분의 해골 곁이었다. 아직 가랑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땅은 질척거리 한치도 나아갈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어 다시 무덤 안에서 머무는데 밤중이 되자 귀신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원효는 탄식하며 말했다.

“전날 밤에는 흙구덩이라 생각하고 편안했는데 오늘 밤에는 귀신집이라 생각하니 탈이 많구나. 그러니 마음이 생하면 갖가지 법이 생하고 마음이 멸하면 구덩이와 무덤이 돌이 아님을 알겠다.[心生故種種法生 心滅故龕墳不二] 또 삼계는 오직 마음 뿐이요 만법은 오직 인식 뿐이다.[三界唯心 萬法唯識] 마음 밖에 법이 없는데 무엇을 따로 구하겠는가. 나는 당에 가지 않겠다.”(『송고승전』 권4 의상전)

그리고는 자루를 거두어 신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여기서 헤어졌다. 의상은 초지대로 중국에 갔다.

원효는 신라에서 할 일이 많았다. 요석공주와 결혼하여 교단에서 나와 교화에 진력하였다. 원효는 무애행(無碍行)을 일삼아 노래를 지어 세간에 유포시키는 등 대중교화에 나섰다.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노력한 것은 많은 저술 작업을 통한 사상체계의 확립이었다. 원효가 남긴 많은 저술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원효가 가장 애써 이룬 저작은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와 『금강삼매경론』이다. 원효는 당시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공유의 집착과 편견의 적극적인 극복을 위해 각각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 다른 견해 사이의 적극적인 회통을 위하여, 『기신론소』의 일심이문(一心二門) 이론과 『금강삼매경론』의 일미관행(一味觀行)의 실천원리로 정립하였다. 원효는 왕실의 지원을 받아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을 저술하였는데, 『금강삼매경』은 뇌종양에 걸린 왕비를 구하기 위해서 용궁에서 얻어와 대안(大安)이 경전을 순서대로 맞추었다는 설화가 전한다. 『판비량론』은 논리학의 차원에서 중관과 유식의 논리가 같음을 논증하는 것으로서, 공유의 화쟁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준거였다. 이러한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여러 경론의 차이점을 화회시키는 『십문화쟁론』

《十門和諍論》을 저술하여 구체적인 분파의식의 극복 이론을 전개하였다.

교단에서 나온 원효는 일반인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소성거사(小姓居士)라고 자칭하며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렸다.

“원효는 화엄경의 구절을 따서 무애박이라는 도구를 만들어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이 박을 가지고 이 동네 저 마을을 노래하고 춤추고 읊조리며 돌아다녀 가난한 사람과 어리석은 무리들이 다들 부처의 이름을 알게 하고 모두 나무를 부르게 하였으니, 원효대사의 교화가 컸다.”(『삼국유사』 권4 원효불기)

원효는 형식주의적인 소승 계율을 지양하고 정신주의적인 보살계(菩薩戒)를 강조하였다. 원효가 제시한 대승보살계 사상은 출가와 재가를 조화하는 것이었다. 원효는 계의 판단기준을 결과가 아닌 동기에 둬으로써 명리와 탐욕과 교만에 빠진 신라 불교계를 비판하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라면 계를 범해도 죄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하여 수행자 개개인의 내면적 각성을 촉구하였다.

새로운 사상 정립과 교화에 큰 의의를 남긴 원효는 70세인 686년(신문왕 6년)에 입적하였다. 원효의 저술은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 등에 의해 모두 90종에 가까운 200여권의 방대한 분량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현재는 23종만이 전해진다.

원효는 여러 저술에서 중관과 유식의 편견에 빠진 교리를 비판하였다. 『기신론별기』에서 원효는 “중관은 모든 집착을 깨뜨리고 깨뜨린 것 또한 깨뜨려서, 깨뜨리는 것과 깨뜨려지는 것을 다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는 보내기만 하고 두루하지 못하는 논”이고, 이에 비해 “유식은 깊고 얇은 것을 두루 세워 법문을 판별하여, 스스로 세운 법을 모두 버리지 않으므로 이는 주기만 하고 빼앗지 못하는 논”이라고 비판하였다. 다른 저술에서도 이와 같은 비판은 자주 나타난다. 학도들은 이런 편견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닦고 행동을 깨끗이 하며 바른 지혜를 체득해야 하므로 유와 무를 다 버리고 어디에도 의거함이 없는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중관과 유식과는 달리 『기신론』의 의미는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지혜롭고도 어질며 깊고도 넓어, 세우지 않음이 없으면서 스스로 버리고, 깨뜨리지 않음이 없으면서 다시 인정한다. 다시 인정한다는 것은 저 가는 것이 다하여 두루 세움을 나타내며,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이 주는 것이 다하여 빼앗음을 밝힌 것이다. 이것을 일러 모든 논 의 근본이요 못 쟁론을 평정하는 주인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과 긍정을 각각 특징으로 하는 중관과 유식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 해도, 중생의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원효는 『기신론』이 이와 같은 중생의 마음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하여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의 사상으로 역동적으로 전개된다고 보았다.

원효 사상의 또다른 특징은 화쟁이다. 화쟁은 다양한 불교 이론들 사이의 다툼을 화해시키는 것이다. 원효는 각각의 견해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이다. 그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견해가 갖고

있는 의미와 한계를 올바르게 인식시켜줌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지 않도록 한다. 원효의 화쟁은 각각의 견해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설득력 있게 내려주고, 자신의 견해가 지닌 한계와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게 함으로써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올바른 견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원효의 사교판 역시 그의 사상 체계를 잘 드러내준다. 불교의 가르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가르침의 바른 의도를 밝히려는 것이 교판이다. 원효는 사교(四敎)를 먼저 삼승(三乘)과 일승(一乘)으로 나누고, 삼승은 다시 범공의 유무를 기준으로 별교(別敎)와 통교(通敎)로 나누며, 일승은 보법을 기준으로 분교(分敎)와 만교(滿敎)로 나누었다. 삼승별교에는 소승, 삼승통교에는 『반야경』과 『해심밀경』을 배당하여 대승 교학의 양대 조류인 중관과 유식이 나란히 위치하도록 하였다. 일승분교에는 대승보살계를 설하는 『범망경』과 『영락경』을 배당하고, 정점인 일승만교에는 『화엄경』을 배당하였다. 중관과 유식의 병렬 배당은 공유의 화쟁을 위한 원효의 의도를 구현하는 것이며, 그 위에 대승계율을 배치한 것은 실천적인 특성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었다. 사교판은 공유를 화쟁하는 교리와 실천적인 계율을 거쳐 원융무애한 화엄사상을 증득하는 데로 나아가는 원효 교학의 체계를 잘 보여준다.

원효가 미타신앙을 중심으로 대중 교화에 매진한 데는 그의 확고한 교학 기반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원효는 미타계 경전에 대한 여러 저술을 통해서 여래장사상을 기반으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러나 중생들은 자신의 마음의 본질적인 평등성에 대해 갖는 의심과 집착을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해서 제거해야 함을 밝혔다. 이는 우선적인 발심(發心)의 강조와 동시에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거하는 청명 염불(念佛)을 내세움으로써 모든 사람의 성불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었다. 원효의 정토관은 일심에 의거하면서도 근기가 낮은 중생을 위해서 방 극락에의 왕생을 인정하는 범부우선론이었다.

### 3. 의상의 불교- 교리 탐구와 실천의 원만한 조화

신라 화엄사상을 주도한 것은 의상(義相, 625~702)이었다. 의상은 삼국간의 쟁패전이 열기를 더해 가던 진평왕 말년에 진골 귀족의 후예로 태어났다. 스무 살 전후하여 황복사에서 출가하여 당시 신라에 소개되었던 섭론지론 등의 교학 탐구에 열중하던 의상은 현장이 인도에서 들여온 신유식을 배우고자 선배인 원효와 함께 650년에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 육로를 통해 중국에 들어가고자 하던 이들의 일차 행로는 고구려 국경에서 좌절되었다. 그러나 661년에 다시 중국 유학길에 나선 의상은 바닷길을 통해 당나라에 건너갔다.

당나라에 간 의상은 먼저 신라에서 익혔던 지론을 더욱 연마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나서 장안 남방의 종남산에서 당시 교학을 집대성하여 새로이 화엄을 정립해가던 지엄의 문하에 나아가 화엄을 배웠다. 의상은 지엄 화엄의 정수를 체득하고 이를 체계화한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를 저술하였다. 의상은 화엄일승 법계연기(法界緣起)의 핵

십을 언어의 절제 아래 210자의 「법계도시(法界圖詩)」로 엮고, 이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법계도인(法界圖印)」을 만들어 그 내용을 『일승법계도』로 정리함으로써 화엄일승 사상을 체계화하였다. 특히 법계도의 형식을 구불구불 돌아가는 시 형태로 만들어 처음과 끝이 이어지는 상징적인 효과를 의도하였고, 최신 기술이던 목판 인쇄에 담아내도록 하였다. 독특한 형상의 법계도는 모든 법을 갖춘 상징이면서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고자 한 것이었다.

670년(문무왕 10)에 의상은 당에서 귀국하였다. 의상은 신라에서 화엄사상을 떠나갈 전법도량을 물색하면서 시대적 과제를 깊이 통찰하였다. 이 시기 원효는 유식과 중관을 화회하여 새로운 철학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중 교화를 통해 민중을 정토신앙으로 포용하고 있었다. 이즈음의 일로 전승된 설화가 낙산(洛山) 관음이다. 의상은 동해변 낙산 굴 안에 관음 진신이 산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정진한 끝에 관음의 진신(眞身)을 친견하였다. 674년에 황복사에서 화엄을 강의하기도 하였던 의상은 676년에 태백산에 부석사를 창건하여 화엄 근본도량을 이루었다. 신라는 이해 11월에 당군을 격파하여 통일 전쟁을 마무리 지었다.

통일 이후 신라 사회는 새롭게 확보한 국토와 국민을 새로운 토대에서 하나로 이끌어갈 화합과 안정이 절실하였다. 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은 681년에 도성을 새롭게 쌓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의상은 축성 중지를 건의하고 관철시켰다.

“왕의 정치와 교화가 밝으면 풀언덕으로 경계를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감히 넘으려 하지 않아서 재앙을 면하여 복이 되지만, 정치와 교화가 밝지 못하면 여러 사람을 수고스럽게 하여 장성을 쌓더라도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삼국사기』 권7 문무왕 21년)”

의상이 지향했던 당시 사회에서의 교단의 역할은 평등사회의 지향과 기층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미타신앙과 관음신앙 전파였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정에의 기여하려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원효 또한 국왕이란 민을 정도로 교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듯이, 의상은 기층민의 안정이라는 명제를 구체적인 교단활동으로 구현해 보였고 이러한 의지를 명확한 정책 건의로 실현시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사회상을 정립하고 삼국민의 안정과 조화를 모색해야 했던 7세기 중후반의 신라 사회에서 의상은 이런 의식을 선도해갔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의상은 또한 청정한 수도자의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의상은 비구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지물인 승복 세 가지와 식기인 발우 하나 곧 삼의일발(三衣一鉢) 이외에는 다른 아무런 소유물도 갖지 않았다. 그래서 국왕이 국왕이 토지와 노비를 주고자 하였지만 의상은 거절하였다.

“우리 불법은 평등하여 위 아래 사람이 함께 나누어 쓰고 귀하고 천한 사람이 함께 지켜 나갑니다. 『열반경』에 여덟 가지 부정한 재물을 말했는데 어찌 농장을 가지며 노비

를 부리겠습니까. 승려는 법계로 집을 삼고 밭으로 농사지어 법신의 지혜로운 생명이 이 몸을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 (『송고승전』 권4 의상전)”

의상이 문무왕에게 토지와 노비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이유는 승려들은 넓은 땅, 곡식을 쌓아두고 이익을 구하는 것, 노비나 금은보화를 갖는 것, 가축을 기르는 것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전에 규정했는데, 어찌 농장에 노비를 부리며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의상이 이끈 화엄종단의 이념은 화엄사상의 평등과 조화의 이론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신분에 따라 구분되는 골품제 사회였다. 의상은 화엄종단 내에서 모든 문도들에게 평등한 종단 운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기층민 출신의 제자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활동을 한껏 보장한 의상의 화엄교단은 화합적 성과를 이룬 것이었다. 의상 화엄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일(一)과 다(多)의 상호관계로 설명되는 법계연기는 평등과 조화의 논리로서 의상의 화엄교단에서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어 실천되었던 것이다.

돈독한 수행으로 교단을 이끌던 의상은 702년(효소왕 11)에 78세로 입적하였다. 성덕왕이 즉위하여 바야흐로 중대의 황금기를 시작해 나가려는 해였다.

의상 화엄사상의 정수인 『일승법계도』는 화엄 법계연기설의 핵심으로 하나[一]와 전체[多]의 관계를 말하는 상입상즉(相入相卽)의 연기법이 핵심을 이룬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一中多] 전체 속에 하나가 있으며[多中一], 하나가 곧 전체요[一卽多] 전체가 곧 하나[多卽一]라는 것이 그것이다. 의상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동전 열 개를 세는 수십전(數十錢)의 비유를 들었다. 『화엄경』에는 모든 법은 차별된 모습이 있지 않고 모두 다 근본수라고 본다. 하나부터 열까지 더해가서 셀 수 없는 무한에 이르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근본수인 것이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다고 할 때 하나는 근본수인데,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이루어진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 둘, 셋에서 열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가 없다면 열도 있을 수 없다. 반대로 둘, 셋 내지 열이 없다면 하나도 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모든 법은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상호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런 관계성을 조직화하고 확대해 나간 것이 법계연기설(法界緣起說)이다. 의상은 그 범주를 하나와 전체의 상입상즉, 조그만 티끌[微塵]과 광대한十方세계, 한 순간과 무한한 시간, 처음 마음을 내는 것[初發心]과 궁극의 목표인 깨달음, 그리고 생사와 열반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를 다라니의 이치와 작용, 현상[事], 시간적 관점[世時], 지위[位]의 4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의상은 이 연기법에 대한 풀이를 자리행(自利行)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이타행(利他行)과 수행(修行)을 추가하여 강한 실천적 성격의 법계도 사상 체계를 제시하였다.

의상은 화엄교단의 사상 기반으로 『일승법계도』를 정통으로 하는 화엄사상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미타정토 신앙을 교단의 중심 신앙으로 확립하였다. 이는 부석사의 가람 구조에서 잘 드러난다. 부석사는 정토에 왕생하는 중생의 구품 구분을 연상하는 대석단을

쌓아 건립되었다. 부석사의 본당인 무량수전은 아미타불 1구만을 주불로 안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의상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전승되어 왔다. 아미타불의 서원력을 확신하는 믿음의 전승이었다.

관음신앙 역시 미타신앙과 같이 이 시기 전 사회 계층에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의상의 관음신앙은 현실적 요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것과는 다른 구도적 신앙이었다. 의상은 경전에서 관음이 보타락가산에 상주하며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는 진신상주(眞身常住) 신앙에 주목하였다. 의상이 제창한 진신상주 관음은 현실 구체적 관음신앙을 보다 확실한 기반 위에 정착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게 하였다.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한 의상의 화엄사상은 실천행을 중시하였고 이는 사상과 문도 형성으로 이룩한 화엄종단에서 신앙으로 실천되었다. 의상의 화엄교단은 화엄경에 토대를 둔 구도적인 관음신앙과, 지방정토를 본체로 삼는 아미타불이 이 땅에서 중생을 정토로 이끈다는 미타신앙을 실천하였다. 의상은 많은 저술을 하지 않고 법계도나 발원문과 같은 짧은 계송을 남겼다. 의상의 관심이 일반 대중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이나 많은 분량의 글보다는 간단한 시구로서 이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의상의 활동은 화엄교단을 열어 문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화엄교학과 정토신앙의 실천을 이어나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지향에 따라 의상은 부석사와 태백산, 소백산 등지에서 여러 제자들에게 화엄을 강의하여 신라 화엄사상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 대표적인 제자들이 십대제자로 불리는 표훈(表訓) 진정(眞定) 도신(道身) 지통(智通) 상원(相元) 양원(良圓) 오진(悟眞) 진장(眞藏) 도융(道融) 능인(能人) 들이다. 이들과 그의 후예들이 부석사 화엄사 해인사 보원사 범어사 갑사 국신사 옥천사 등 화엄십찰을 건립하여 화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 4. 사상과 실천의 조화로운 삶

다채롭게 전개된 사상과 신앙의 역동적인 신라불교는 7세기 후반에 의례와 실천 신앙의 확보로 전 사회 계층이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신라 불교사상과 화엄종과 법상종 같은 종단의 형성을 이룩하였고, 신앙 대상이 일반민에게 확대되며 지역적으로 왕경(王京) 중심에서 지방사회로 확산되었다.

이 시기를 이끌던 불교사상가는 원측과 원효와 의상이다. 원측이 당에 계속 머물면서 새로운 경전의 번역과 소개에 힘을 기울인데 비해, 원효와 의상은 신라불교의 체계를 정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파하였다.

원효는 당시 거의 모든 경론을 섭렵하며 방대한 저술을 통해 굳건한 사상 체계를 정립하였다. 이는 신라불교, 신라문화의 역량을 확인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원효의 진면목은 교단불교와는 다른 활동 무대를 가졌던 사람들과 교유하며 대중교화 활동에 나선데 있다. 요석공주와의 관계로 교단을 나온 원효는 행동은 대중거화를 염두에 둔 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다. 원효가 『기신론소』로 확립한 새로운 이론 체계와 『십문화쟁론』으로 이론 분파의식의 극복 이론은 당대의 지난한 사상적 과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성과



입과 동시에, 이와 함께 추진한 기층민 대상의 미타정토신앙은 사상적인 성과 못지 않는 소중한 사회의식이었던 것이다.

의상은 통일기 신라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모순의 해결을 화엄의 평등사상에서 찾았으며 이를 구현하고자 일반민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교화활동을 전개하였다. 통일기 초기의 신라 경제는 전란의 회복과 신진 사회경제체제의 시행이 절실하였고, 의상은 이런 상황에서 교단의 규율을 정립하고 민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교단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그가 청정한 수도자의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화엄교단에 기층민 출신의 제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도 그와 같은 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가난한 기층민 출신의 진정이나 노비 출신의 지통 등이 첫손 꼽는 제자로서 화엄교단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상의 화엄교단이 신분의 평등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통일 후의 신라 사회에서 일반민들이 골품제 신분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보였다면, 비록 교단 내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평등한 신분의식을 관철하였던 의상의 지향은 적극적인 사회의식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원효와 의상의 이와 같은 사상과 신앙 운동은 새로운 불교 철학 형성에 노력하던 신라 불교계에 진전된 사상 체계를 제시하는 성과를 이루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의 대중화도 이룩해낸 의미있는 것이었다. 이들의 신앙활동에서 보이는 범부 우선의 정도관이나 기층민 중심의 교단 신앙은 새로운 화합적 의식을 갈망하던 신라 사회에 더없이 적절한 사회의식으로 기능하는 것이었다. 온갖 갈등이 그물망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원효와 의상이 실천했던 조화로운 사상과 행동은 다시 음미해볼 이유가 있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2016 『신라사대계』(1~30권)  
한국고대사학회, 2017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 2』, 주류성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2016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고익진, 1989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학교출판부.  
국사편찬위원회, 2007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전통의 흐름』, 두산동아.  
김두진, 2002 『신라 화엄사상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복순, 1990 『신라화엄종연구』, 민족사.  
김상현, 1991 『신라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이기백, 1986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정명삼, 1998 『의상 화엄사상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참고자료 열람

1.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2.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MEMO>

---

---

---

---

---

---

---

---

---

---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